

최초의 러시아어 사서(四書) 번역본들 — 18세기 볼코프의 『논어(論語)』 번역과 19세기 비추린의 『대학(大學)』 번역을 중심으로 —

비코바 알렉산드라(성균관대학교)

1. 서론

청나라와 러시아 차르국 사이에 벌어진 국경 분쟁의 일부인 알바진 공성전(攻城戰)(осада Албазина, 1685년~1686년)이 끝나자 알바진인 병사들 중 수십명은 베이징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믿었던 정교회를 중국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으므로 낯선 나라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였던 알바진인들은 베이징으로 러시아 사제(司祭)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오랜 협상 끝에 청나라와 러시아 차르국이 합의에 이르러 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Пётр I, 1672년~1725년)에 의하여 베이징 종교 사절단(Пекинская духовная миссия)을 처음으로 선임하여 1714년에 중국으로 파견하였다.

제1차 베이징 종교 사절단은 베이징에 정착하게 된 알바진인들을 보살피는 것과 동방 정교회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나, 중러 외교 관계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선교 활동 외에도 베이징 종교 사절단이 중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중국어를 연구할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러시아 학자들은 중국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유교의

경전을 접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 학자들 중 일라리온 칼리노비치 로소힌(Иларион Калинович Россохин, 1707년 혹은 1717년~1761년)은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중국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어 귀국 이후에 중국 교육 방식을 러시아에서 적용하였다.¹⁾ 1741년에 로소힌은 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Петербург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의 강사가 되어 제자들과 함께 유교의 경전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특히 로소힌의 제자들 중 야코프 볼코프(Яков Волков, 1728년~미상)는 중국 문화에 대한 스승의 열정에 영감을 받아 처음으로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서(四書)의 번역을 시도하였다. 안타깝게도 볼코프가 한 번역은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출판되지도 않았으나 그의 번역부터 러시아어 사서 번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14년에 처음으로 과견되었던 베이징 종교 사절단을 통하여 시작된 러시아의 중국학 연구는 19세기 되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제9차 베이징 종교 사절단의 대표로 선발된 니키타 야코블레비치 비추린(Никита Яковлевич Бичурин, 1777년~1853년)은 1808년에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며 중국을 연구하는 데에 몰입하였다. 13년 동안 베이징에서 연구하였던 비추린은 당시의 러시아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의 학문적인 몰입은 큰 성과를 이루었다(Myasnikov & Popova, 2002, p. 1100). 로소힌처럼 비추린도 사서를 중국 철학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책으로 여겨 깊이 연구하고 여러 번 번역하였는데 볼코프가 한 번역과 마찬가지로 비추린이 한 번역도 출판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의 유교 철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Liu, 2024, p. 46).

본고는 사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러시아 학자들을 소개하면서 베이징 종교 사절단의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사서를 번역하게 된 계기와 사서를 번역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였던 목적, 그리고 그들이 한 사

1) 로소힌의 생년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으나, 타라노비치에 따르면 로소힌이 1707년에 태어났다는 것은 외국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 (Taranovich, 1945, p. 225).

서 번역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본고는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사서의 번역 중 볼코프의 『논어』 번역과 비추린의 『대학』 번역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러시아어 사서 번역본들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로소한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볼코프의 『논어』 번역

볼코프의 『논어』 번역본은 사서 최초의 러시아어 번역본에 들어가는 것으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Библиотека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에 소장되어 있다.²⁾ 이 번역본은 출간되지 않았으므로 번역필사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필사본의 제목은 『중국 유교 경전 사서 또는 논어. 다양한 철학이야기』이다.³⁾ 필사본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야코프 볼코프가 러시아어로 번역하였다”라는 문장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논어』를 포함하는 사서를 러시아어로 옮기는 번역작업을 야코프 볼코프(Яков Волков)가 한 것이다(Skachkov, 1977, p. 44). 이처럼 볼코프가

2) 여기에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Библиотека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Петербург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도서관을 말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또는 제국 과학 아카데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칭으로, 러시아 제국 황제 표트르 1세(Пётр I, 1672년~1725년)에 의하여 1724년에 창립된 러시아 제국 최초의 과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1917년 이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로 명칭이 바뀌게 되어 1925년까지 이 명칭이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성립되자 1925년에는 ‘소련 과학 아카데미(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로 또 명칭이 바뀌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었다가 1934년에는 모스크바로 이전되었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라는 명칭이 복원되었다. 이처럼 현재의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에서 기원하였으므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을 말할 때는 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하는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을 말한다.

3) 러시아어로는 번역필사본의 제목이 “Книга Сышу или Шан Лун поу китайского кунфудзыского закону филозофическия разныя разсуждения”이다.

사서를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⁴⁾ 남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볼코프가 1728년에 군인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13살 때에 일라리온 칼리노비치 로소힌(Иларион Калинович Россохин)의 어학당에 입학하였다는 사실 정도이다(Tsvetkov, 2019, p. 66). 볼코프에게 스승이 된 로소힌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볼코프가 한 『논어』의 번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이 기록을 통하여 러시아 학자들이 처음으로 유교의 경전을 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러시아의 중국학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시작하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소힌은 러시아의 중국학 기틀을 세운 인물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 당시의 중국학을 연구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학자이다. 로소힌은 정교회 사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1725년에는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의 보즈네센스키 수도원(Вознесенский монастырь)에 부속된 학교에 입학하였다. 수학과 국어와 같은 기본적인 과목들 외에도 이 학교 학생들은 몽골어를 공부하였는데 로소힌은 특히 몽골어 공부하는 데에 다른 학생보다 뛰어났다고 한다(Taranovich, 1945, p. 226). 이처럼 공부에 힘쓰고 언어에 재능이 있는 로소힌은 제2차 베이징 종교 사절단의 구성원으로 선발되어 1729년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중국에 간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통역일도 맡게 되었으며 높은 지위에 있는 중국 관리자들에게 러시아어도 가르치게 되었다. 1741년에는 로소힌이 귀국하자마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에서 중국어와 만주어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로소힌의 요청으로 아카데미 안에 중국어 및 만주어 어학당이 창립되었고 이 어학당은 바로

4) 츠베트코프(Tsvetkov, 2019)에 따르면, 볼코프가 한 『논어』의 번역은 러시아의 중국학 역사를 다루는 여러 책과 논문에서 언급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스카치코프(П.Е. Скачков)의 『러시아의 중국학 역사 에세이』(“Очерки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китаеведения”)와 다츠센(В. Г. Дацшен)의 『러시아 제국에서의 중국 역사 연구(18세기~20세기 초반)』(“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и Китая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XVIII - начало XX вв.)”), 그리고 타라노비치(В. П. Таранович)의 논문인 「일라리온 로소힌과 그의 중국학 연구(“Иларион Россохин и его труды по китаеведению”)」 따위가 있다고 한다.

볼코프가 입학하게 된다.

귀국한 이후에 로소힌은 가르치는 일과 번역일을 병행하였는데 둘 중 어떤 일을 더 중요시하였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그가 한 다양한 번역들은 러시아의 중국학 연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으며 그 당시의 러중 외교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Sukhodolov et al., 2019, p. 12). 로소힌이 아카데미에 올렸던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가 번역한 자료들을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 역사자료의 번역이다. 로소힌이 번역한 역사적인 자료들 중 중국 왕들의 연대기와 만주족의 기원을 설명하는 자료, 중국 지도책들, 그 당시의 중국의 경제적인 현황과 관련된 자료, 중국 외교관들의 러시아 여행에 대한 기록, 중국 역사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이 있다. 첫 번째 자료의 특징은 그들을 로소힌이 직접 골라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소속하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 학자들의 요청으로 번역한 것이었다. 즉 첫 번째 번역들은 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 학자들이 연구하거나 정치나 외교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Tsvetkov, 2024, p. 20). 두 번째 자료들은 첫 번째 자료들과 달리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자료들 중에는 교훈이 담겨 있는 중국 철학자들의 명언집, 중국 고대의 대표적인 스물네 명의 효자 이야기인 『이십사효(二十四孝)』, 송나라 왕응린(王應麟, 1223년~1296년)이 편찬하였던 어린이 계몽교재인 『삼자경(三字經)』 과 양나라 주흥사(周興嗣, 470?년~521년) 지은 한자교육의 기본교재인 『천자문(千字文)』, 그리고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소아내부자(小兒奈夫子)』 와 명나라 정주학자 설선(薛瑄, 1389년~1464년)이 지은 『설문청공종정명언(薛文淸公從政名言)』 의 일부인 「설문청공요어편(薛文淸公要語篇)」 등이 있다. 로소힌이 번역한 자료의 제목만 보아도 그의 진정한 교육적 관심사를 엿볼 수 있다. 로소힌은 러중 외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도서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로소힌이 단순히 그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삼자경(三字經)』 과 『천자문(千字文)』 같은 중국 전통적인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중국 문헌에 담긴 철학과 문

화를 책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였다. 그러한 교육 방식은 또한 중국 전통적인 교육을 따라가는 것이다(Tsvetkov, 2019, p. 66). 이처럼 학생들의 교육에 끊임없이 신경썼던 로소힌이 중국 전통적인 교재 외에도 최초의 중러 사전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은 로소힌이 러시아의 중국학 연구에 기여할 후속세대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을 반영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로소힌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수동적인 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있는 번역일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예컨대 『이십사효』는 세 가지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러시아어 번역은 로소힌이 직접 하였고 중국어 필사는 야코프 볼코프, 만주어 필사는 스테판 체크마레프(Степан Чекмарев)가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십사효』의 번역필사본과 마찬가지로 『설문청공중정명언』의 일부인 「설문청공요어편」의 번역필사본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아내부자』의 번역필사본도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 글은 레보네이 사벨예프(Левонгей Савельев), 만주어 글은 세멘 코레린(Семен Корелин)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Taranovich, 1945, p. 234). 이것은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번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로소힌의 제자들이 『삼자경』과 『천자문』 같은 중국 전통적인 교재를 통하여 한문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스승이 하는 번역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들이 결국 스스로 번역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준비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로소힌의 제자인 볼코프가 한 사서 최초의 러시아어 번역은 바로 그 준비 과정이 만들어낸 성과이다. 안타깝게도 중국어나 만주어에서 러시아어로 로소힌이 옮긴 대부분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볼코프가 한 사서의 번역도 출간되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에 그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2019년에 러시아의 중국학 학자이자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문화 대학교 교수인 드미트리 빅토로비치 츠베타코프(Дмитрий Викторович Цветков)가 볼코프가 한 사서의 번역 중 특히 『논어』의 번역에 관심을 가져 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Tsvetkov, 2019). 그는 볼코프가 한 『논어』의 번역을 주희(朱熹, 1130년~1200년)의 『논어집주(論語集註)』에 나오는 『논어』의 원문과 비교함으로써 볼코프가 한 『논어』 번역의 약점을 살펴보았다. 츠베타코프의 연

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볼코프가 한 『논어』 번역은 전반적으로 원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논어』에서 원래 있는 내용이 볼코프가 한 번역에서는 생략된 경우가 있다. 예컨대, 「이인(里仁)」 편에서 “3년 동안 아버지의 도(道)를 고치지 않아야 효(孝)라고 이를 수 있다.”라는 구절은 볼코프가 한 번역에서 생략되어 있다.⁵⁾ 또 생략된 내용 중 「계씨(季氏)」 편에서 나오는 제14장의 내용이 있는데⁶⁾ 이 구절은 볼코프가 다음 편인 「양화(陽貨)」 제2장에서 나오는 “본성(性)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習)은 서로 먼 것이다.”라는 구절로 교체한다.⁷⁾

둘째, 볼코프가 한 번역에서는 때때로 『논어』에서 나오는 고유명사가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공야장(公冶長)」 편에서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옛날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원한이 적었다.”라는 구절에서는 볼코프가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으로 오역한다.⁸⁾ 마찬가지로 「선진(先進)」 편에서 “나를 진(陳)나라와 채(蔡)나라에서 따르던 자들은 모두 문(門)에 이르지 않구나!”라는 구절에서는 볼코프가 진(陳)나라와 채(蔡)나라를 초(楚)나라와 제(齊)나라로 오역한다.⁹⁾

셋째, 볼코프는 『논어』의 원문에 나오는 제목들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팔일(八佾)」 제3편의 제목은 볼코프가 한 번역에서 「계씨(季氏)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나오며, 「술이(述而)」 제7편의 제목은 「진정한 학문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제2편인 「위정(爲政)」은 제목이 없이 원문만 번역되어 있다(Tsvetkov, 2019, p. 68).

- 5) 『논어(論語)』, 「이인(里仁)」 : 子曰 :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 6) 『논어(論語)』, 「계씨(季氏)」 : 邦君之妻, 君稱之曰夫人, 夫人自稱曰小童, 邦人稱之曰君夫人, 稱諸異邦曰寡小君, 異邦人稱之, 亦曰君夫人.
- 7) 『논어(論語)』, 「양화(陽貨)」 : 子曰 : “性相近也, 習相遠也”. 볼코프의 번역문 : “Говорит Кун-дзы природа друг с другом ближе нежели повадна.”(Tsvetkov, 2019, p. 68에서 인용됨).
- 8)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 : 子曰 : “伯夷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 볼코프의 번역문 : “Говорит Кундзы Юю и Шунь не помнили старого зла и для того редко на них жаловался.”(Tsvetkov, 2019, p. 67에서 인용됨).
- 9) 『논어(論語)』, 「선진(先進)」 : 子曰 : “從我於陳蔡者皆不及門也”.

넷째, 가장 놀라운 것은 볼코프가 한 번역에서는 제17편인 「양화(陽貨)」, 제18편인 「미자(微子)」와 제19편인 「자장(子張)」, 그리고 제20편인 「요왈(堯曰)」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츠베타코프(Tsvetkov, 2019, p. 68)에 의하면, 이처럼 『논어』의 마지막 네 개의 편이 볼코프가 한 번역에서 없는 이유는 볼코프가 주희의 『논어집주』에 나오는 『논어』와 다른 『논어』의 원문을 번역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며 위에 언급한 그의 번역의 다른 약점도 역시 그러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략된 내용, 잘못 번역된 고유명사와 일부의 제목들, 그리고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볼코프가 한 번역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초벌 번역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나 츠베타코프는 번역필사본이 수정 흔적이 없으므로 이를 초벌 번역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Tsvetkov, 2019, p. 68).

『논어』 최초의 러시아어 번역은 볼코프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이 번역이 사서에 포함되는 『대학』과 『중용』, 그리고 『맹자』의 번역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볼코프가 독립적으로 한 것보다는 그의 스승인 로소힌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Skachkov, 1977, p. 44). 결론적으로 앞서 정리한 츠베타코프의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18세기 중반에 한 볼코프의 『논어』 번역은 개선할 여지가 많아 보인다. 그 이유는 로소힌과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였던 시기에 중국어를 하는 러시아인들의 언어 능력은 어느 수준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중국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여전히 부족함으로 유교 경전을 번역하기는 그들에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언어 교육을 받은 로소힌의 학생들이 베이징 종교 사절단의 구성원으로 선발되어 중국으로 유학 가는 것이 로소힌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로소힌의 어학당은 1741년에 창립되었고 그 후 10년만인 1751년에 폐지되었으며 자기의 번역을 출판해 달라는 로소힌의 요청도 과학 아카데미는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베이징 종교 사절단은 지속적으로 파견되었으므로 중국학 연구가 계속되면서 19세기에 새로운 발전 단계로 올랐다.

3. 비추린의 『대학』 번역본의 체계적인 구조와 번역의 특징

로스힌이 꿈꾸었던 대로 중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중국어를 연구하는 데에 몰입하였으며 러시아의 중국학 연구를 크게 발전시켰던 19세기의 대표적인 학자는 니키타 야코블레비치 비추린(Никита Яковлевич Бичурин)이다. 그의 전임자인 로소힌과 마찬가지로 비추린도 어린 시절부터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 비추린은 현재 러시아 추바시(Чувашия) 공화국의 수도인 체보크사르(Чебоксары)에서 6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비추리노(с. Бичурино)라는 작은 마을에서 1777년에 태어났으며 8세에는 카잔 신학교(Казанская духовная семинария)에 입학하였다. 카잔 신학교에서 비추린은 외국어 중 라틴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프랑스어를 습득하였으며 1799년에는 졸업한 후 본교에 문법 강사가 되었다(Bichurin, 1855, p. 666). 1800년에는 비추린이 사제로 서품되어 이아킨프(Иакинф)라는 이름을 받았으며 몇 년 후에는 대수도사제가 되어 이르쿠츠크 신학교(Иркутская духовная семинария)의 학장으로 임명되었다. 1807년에는 비추린이 제9차 베이징 종교 사절단의 대표로 선발되었는데 이는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아도라트스키(Adoratsky, 1886, Myasnikov & Popova, 2002, p. 1100에서 인용됨)에 따르면 비추린은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중국이라는 “낮선 나라와 그 나라의 문학을 최대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중국 문화에 대한 비추린의 깊은 관심과 연구자로서 그의 성실한 태도를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7년째에 그는 스승의 조언에 따라 사서를 번역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붙였다. 이 작업을 통하여 그는 사서가 다른 중국 철학서를 번역하는 데에 핵심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외에도 중국어로 된 책을 번역하거나 강독할 때 고대 중국과 현대 중국의 지리, 그리고 중국 역사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의 또 다른 깨달음이였다. 그러한 까닭에 사서를 번역한 후 그는 중국 지리지를 읽고 내용을 정리하여 3권으로 구성된 『일통지(一統志)』를 지었다. 『일통지(一統志)』를 작성하였을 때 비추린이 참고하였던 지리지는 『대청일통지

(大清一統志)』로 추정되고 있다. 그 후 중국 역사서를 읽고 16권으로 구성된 번역본을 준비하였다. 명나라의 역사는 별도로 17권에 서술되어 있다.(Bichurin, 1855, p. 666)

이 기록을 통하여 비추린은 1807년 이전의 베이징 종교 사절단 학자들과는 다른 연구 방법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이전 학자들과 달리 비추린은 무엇보다도 중국 지리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을 중요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학서 번역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종교 사절단의 대표로서 비추린이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베이징으로 파견되었던 러시아 학자들은 주로 선교 활동을 할 주요 임무가 있었으므로 비추린은 중국으로 도착하자 몇 년 동안 종교적인 활동과 중국학 연구를 병행하였다. 그동안 비추린은 중국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러시아 정교회의 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1685년 후 베이징에 정착하게 되었던 알바진인들이 정교회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썼다. 그러나 그들 중 대다수가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교회를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비추린은 크게 실망하여 더 이상 종교 사절단의 대표로서 선교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Skachkov, 1977, p. 92). 그것은 귀국 후 비추린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한다는 비난을 받아 1823년에 대수도사제 직위를 박탈당하여 바라암 수도원으로(Валаамский монастырь) 유배된 이유가 되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학자로서 중국학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로소힌을 포함하여 18세기에 중국으로 파견되었던 러시아 학자들은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면 13년 동안 베이징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연구하였던 비추린은 그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러시아의 중국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로소힌과 마찬가지로 비추린도 수월한 연구를 위하여 중리 사전을 만드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겼다. 코진(Kozin, 1929)의 연구에 따르면 비추린이 적어도 여섯 권의 중리 사전을 편찬하였다고 한다. 번역가로서는 비추린이 중국 청나라 때에 편찬된 지리지인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 송

나라부터 명나라까지 중국 역사를 다루는 『속자치통감강목(續資治通鑑綱目)』, 『베이징에 대한 설명』, 사서와 『서경』 등과 같은 번역서를 남겼다.¹⁰⁾ 그 외에도 『중국에서의 교육에 대한 고찰(“Взгляд на просвещение в Китае”)』, 『중국 : 중국 사람들, 그들의 일상과 관습, 그리고 교육(“Китай. Его жители, нравы, обычаи, просвещение”)』, 『학자의 종교에 대한 설명(“Описание религии ученых”)』 등과 같은 비추린이 쓴 책들을 통하여 중국 문화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과 동시에 러시아 사람들에게 중국을 소개하고 싶은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사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추린이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보았으며 사서의 번역에 특히 힘썼다. 로소힌과 그의 제자들이 한 번역과 달리 비추린이 한 번역은 사서의 원문을 러시아어로 옮기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원문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비추린이 한 번역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청나라 때에 과거시험 준비를 위해 1810년에 출판된 교재인 『동판사서준주합(銅板四書遵註合講)』을 사서의 원문으로 선택하여 이를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류묘(Liu, 2024, p. 51)에 따르면 그러한 선택은 비추린이 한 번역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번역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동판사서준주합강』의 성격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본다.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로서 『동판사서준주합강』은 사서와 그에 대한 주희의 주석, 그리고 다른 중국 학자들이 남긴 상세한 설명과 역사적인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책이다. 이처럼 유교 사상의 모든 근본적인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책을 강독하고 그 속에 담긴 사서를 번역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결국 중국 철학에 대한 비추린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가 한 번역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Liu, 2024, p.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코프가 한 사서 번역과 마찬가지로 비추린의 번역도 아직 출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의 번역필사본은 샹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Институт восточных рукописей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Архив востоковедов)와 카잔(Казань)에 위치하는 타타르스탄 국가기록원(Национальный архив

10) 『베이징에 대한 설명』의 원문에 대해서는 비추린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Татарстана)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로 비추린이 한 사서의 번역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며 특히 사서 중 『논어』, 『맹자』, 『중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비추린이 번역한 『대학』은 최근 들어 중국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본고는 2024년에 나온 류묘(Liu, 2024)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비추린의 『사서』 중 『대학』의 네 가지 주요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비추린의 『대학』 번역 첫 번째의 특징은 책의 구조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추린은 단순히 사서의 원문을 러시아어로 옮긴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따라서 비추린이 한 『대학』의 번역본은 대학장구서(大学章句序)라는 서문, 『대학』의 원문(大学原文)과 이에 대한 주희의 주석이 담긴 주희장구(朱熹章句), 제유집요(诸儒辑要)와 옹복강의(翁復讲义)라는 해설 부분, 그리고 대학인물고(大学人物考)라는 끝부분, 비추린의 해석까지 모두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유집요는 『대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뛰어난 유교 학자들의 해석을 모아놓은 것이며 옹복강의는 『대학』에 대한 청나라 학자인 옹복(翁復)의 해석을 소개하는 글이다. 대학인물고는 원문에서 언급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설명과 『대학』의 역사적 맥락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추린의 번역은 단순히 『대학』의 원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철학적인 의미와 그 속에 담겨 있는 유교 사상, 그리고 그 당시의 중국 역사적·문화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Liu, 2024, p. 52).

비추린의 『대학』 번역 두 번째의 특징은 그가 『동판사서준주합강』을 참고하면서 중국 철학자들의 『대학』에 대한 해석을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교 개념에 대하여 자기의 철학적인 해석을 덧붙였다는 점이다. 류묘에 따르면 비추린이 단 각주는 모두 57개 있으며 대부분은 중국 문화의 특징, 등장하는 인물과 지리적인 명칭, 그리고 철학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한다(Liu, 2024, p. 54). 특히 철학적인 개념에 대한 비추린의 설명을 살펴보면, 중국 철학에 대한 그의 이해가 보통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수신(修身)에 대하여 비추린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수신이란 나쁜 성향을 버리고 좋은 성향이 강화되는 데에 힘을 쓴다는 것이다.¹¹⁾

또 ‘정’(靜)와 ‘안’(安)의 차이에 대해서는 비추린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은 평화롭고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이며, 안은 즐거운 몸의 상태인데 이 상태는 마음의 평화로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상태는 안에 있는 선함을 느끼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¹²⁾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대학』을 번역하였을 때에 비추린은 번역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보다는 원문에 담겨 있는 중국 사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희의 주석과 『대학』에 대한 중국 철학자들의 해석을 번역하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각주를 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비추린의 성실함과 중국 철학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신이란 나쁜 성향을 버리고 좋은 성향이 강화되는 데에 힘을 쓴다는 것”이라는 비추린의 설명을 통해서 보면 그는 인간 안에 악함과 선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중국 철학의 핵심 명제를 알았음을 알 수 있다. 정(靜)은 마음의 평화로움, 안(安)은 신체적인 만족함으로 여기면서 마음의 상태를 대표하는 정과 몸의 상태를 대표하는 안에 대한 비추린의 구분은 약간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이지만 안은 선함을 느끼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독해하는 것은 중국 유교 사상에 대한 비추린의 관심이 점차 이 사상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추린의 『대학』 번역 세 번째의 특징은 번역 접근법과 관련된 것이다. 『대학』을 번역하였을 때에 비추린은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번역에서 정확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번역이 원문의 내용과

11) 원문 : “Улучшать себя значит отсекая худые навыки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ебя в добрых”(Liu, 2024, p. 55에서 인용됨).

12) 원문 : “Покой есть мирное, мыслями не колеблемое состояние души; спокойствие есть удовлетвор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тела, происходящее от покоя души или яснее от чувствования в себе добра”(Liu, 2024, p. 55에서 인용됨).

의미에 일치함을 말한다. 류묘에 따르면 비추린이 한 『대학』의 번역은 원문과 높은 일치도를 보여 준다고 한다(Liu, 2024, p. 56). 직역과 의역 중 비추린은 직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경향은 비추린이 중국어 문장 구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문장을 그대로 러시아어로 직역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자(天子), 수신(修身),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격물치지(格物致知), 지어지선(止於至善) 등과 같은 개념을 번역하였을 때 비추린은 러시아 말 중 비슷한 말을 찾아 전체적인 의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자에 담겨 있는 의미를 최대한 살리려는 의도가 보인다.¹³⁾

번역의 정확성 외에도 비추린은 『대학』을 번역할 때에 19세기의 러시아 표준어보다는 옛날 표현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경향은 의도적인 용어 선택으로 보인다. 그것이 바로 그의 번역의 네 번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한글 번역문: 사물의 이치가 이룬 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 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루어지고, 마음이 바루어진 뒤에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해진다(고르게 된다) (성백효, 2017b, p. 28)

비추린의 번역문: Когда исследуем вещи, после сего и знание усовершенится. Когда усовершенится знание, после сего и мысль соделается истинною. Когда мысль будет истинною, после сего и сердце испрямится. Когда сердце будет прямо, после сего и лучшим самих себя. Когда лучшим самих себя, после сего и дом благоустроится. Когда благоустроен будет дом, после сего можно благоуправить царство. Когда благоуправим царство, после

13)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은 비추린이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천자(天子) - “сын Неба”, 수신(修身) - “улучшение самих себя”, 명명덕(明明德) - “просветлить светлые добродетели”, 신민(新民) - “обновить народ”, 격물치지(格物致知) - “снискание познаний состоит в точном и ясном разумении вещей”, 지어지선(止於至善) - “остановиться на совершенном добре”.

сего и Поднебесная умирится. (Liu, 2024, p. 58에서 인용됨)

위의 인용문에서 류묘가 논하는 “после сего”(뒤에), “соделается истинною”(뜻이 성실해지다), “испрямится”(바르게 되다), “благоустроится”(가진해지다), “благоуправить”(다스려지다) 등과 같은 표현들은 사실상 주로 17~18세기 많이 썼던 표현들이다. 그러한 용어 선택은 글의 고전적인 느낌을 전달하며 글의 철학적인 깊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Liu, 2024, p. 58).

비추린은 사서를 번역하는 작업을 1813년에 시작하였다. 그 후에도 그는 자신이 한 번역을 끊임없이 수정하여 여러 권의 번역본을 남겼다(Myasnikov & Popova, 2002, p. 1103). 사서에 포함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을 비추린이 순서대로 번역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대학』 번역의 특징은 『대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서의 번역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주장은 다소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비추린의 『대학』 번역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두고 그의 『논어』와 『맹자』, 그리고 『중용』 번역을 분석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남기겠다.

4. 결론

본고는 18~19세기에 사서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러시아 학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한 사서 번역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앞서 논하였듯이 러시아에서의 중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중국어에 대한 연구는 종교적인 활동 속에서 시작되었다. 러시아 황제 표트르 1세에 의하여 1714년에 처음으로 중국으로 파견되었던 베이징 종교 사절단이 선교 활동 외에도 중국을 연구할 중요한 임무가 있었으므로 사절단의 구성원으로 선발되었던 러시아인들은 중국에서 정교회를 전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학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로소힌과 비추린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로소힌과 비추린이 받았던 종교교육과 그들의 뛰어난 언어 재능은 그들을 베이징 사절단의 구성원으로 선발된 이유가 되었으며

학문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낯선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중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중국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로소힌과 비추린은 유교 철학을 접하고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과 같은 유교의 경전을 만났다.

유교 철학에서 사서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들은 사서를 번역하게 되었는데 사서를 번역하였을 때 로소힌과 비추린이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였다. 로소힌은 교육자로서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중국학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데에 힘썼다. 로소힌의 교육방식은 중국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로소힌의 제자들은 스승에 직접 번역한 『삼자경』과 『친자문』 같은 중국 전통적인 교재를 통하여 한문을 익히고 기초학문을 익힌 후 그들은 스승이 하는 번역일에 참여하면서 한문독해 실력을 배양하였다. 그러한 과정은 로소힌의 제자들이 결국 스스로 번역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볼코프가 한 사서 최초의 러시아어 번역은 바로 이 과정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소힌이 볼코프에게 사서의 번역을 맡겼을 때 유교 철학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보다는 번역하는 작업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번역 훈련을 공부방법으로 삼았다. 사서를 번역하는 것을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훈련으로 보았던 로소힌과 달리 비추린은 사서를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 사서에 담겨 있는 철학적인 의미를 살피면서 유교 사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였다. 그러한 목적은 비추린이 번역한 사서의 원문의 선택을 통하여 엿볼 수 있다. 청나라 때에 과거시험 준비를 위해 출판된 교재인 『동판사서준주합강』을 사서의 원문으로 선택한 비추린은 원문은 물론, 『동판사서준주합강』에 포함된 주희의 주석과 다른 중국 철학자들의 사서에 대한 해석, 그리고 원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설명과 역사적 맥락을 서술하는 부분까지 성실하게 번역하였다. 비추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서의 원문에 대한 자기의 설명을 덧붙였다. 이처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추린의 번역은 단순히 사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서의 철학적인 의미와 그 속에 담겨 있는 유교 사상, 그리고 그 당시의 중국 역사적·문화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만큼 러시아의 유교 경전 번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볼코프의 사

서 번역과 비추린의 사서 번역은 소중하고 중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은 아직도 출판되지 않고 번역필사본 형태로 소장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폴코프의 사서 번역과 비추린의 사서 번역이 출판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며 본 연구도 번역필사본을 직접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소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러시아 유교 경전 번역사의 기초적 성격을 규명한 연구로 지금까지 한국 번역학계나 러시아학 분야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를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어 사서 번역본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구는 러시아어 사서 번역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하나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서의 여러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번역의 특징, 정확성, 명확성 등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언어학적 분석으로 나아가는 것이 본 연구의 향후 방향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성백효. (역). (2017a). *논어집주*. 한국인문고전연구소.
 성백효. (역). (2017b). *대학중용집주*. 한국인문고전연구소.

<2차 자료>

- Adoratsky, P. S. (1886). Отец Иакинф Бичурин (исторический этюд) [Father Iakinf Bichurin (historical etude)]. *Pravoslavnyi sobesednik, March 1886*, 40-48.
- Bichurin, N. Y. (1855). О. Иакинф Бичурин (Автобиографическая записка) [Fr. Iakinf Bichurin (Autobiographical Note)]. *Uchenye zapiski Akademii nauk po pervomu i tret'emu otdeleniyam*, 3, 665-672.
- Datyshen, V. G. (2022). *Изучение истории Китая в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XVIII - начало XX вв.)* [The Study of Chinese History in the Russian

- Empire (18th – early 20th centuries)*]. Prospekt.
- Kozin, S. A. (1929). О неизданных работах Иакинфа Бичурина [On the Unpublished Works of Iakinf Bichurin]. *Izvestiya Akademii nauk SSSR. Otdelenie gumanitarnih nauk*, 5, 399-412.
- Liu, M. (2024). Научные переводы «Да-сюэ» в России XIX века: сопоставление подходов Н. Я. Бичурина и Д. П. Сивиллова [Scientific Translations of “Da-xue” in 19th Century Rus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Approaches of Nikita Bichurin and Dmitry Sivillov]. *Nauchnyi dialog*, 13(10), 43-64.
- Myasnikov, V. S., & Popova, I. F. (2002). Вклад О. Иакинфа в мировую синологию. К 225-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члена-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Н. Я. Бичурина [Fr. Iakinf's Contribution to the World Sinology. To the 225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Corresponding Member N. Y. Bichurin]. *Vestnik Rossiyskoy Akademii Nauk*, 72, 1099-1106.
- Skachkov, P. E. (1977).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китаеведения* [Essays on the History of Russian Sinology]. Nauka.
- Sukhodolov, A. P., Vasilenko, V. A., & Kuzmin, Y. V. (2019). И.К. Россохин: иркутское начало российского китаеведения и маньчжуроведения [I. K. Rossokhin: Irkutsk as the Cradle of Russian Sinology and Manchurian studies]. *Russian and Chinese Studies*, 3(2), 7-16.
- Taranovich, V. P. (1945). Илларион Россохин и его труды по китаеведению [Illarion Rossokhin and His Works on Sinology]. In A. P. Barannikov, I. Y. Krachkovsky, A. A. Petrov. (Eds.), *Совет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III* [Sovetskoe vostokovedenie III] (pp. 225-241). Izdatel'stvo Akademii nauk SSSR.
- Tsvetkov, D. V. (2019). Особенности первого перевода конфуцианского текста “Луньюй”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Features of the First Translation of the Confucian Text “Lunyu” into Russian]. *Bibliosphere*, 2, 65-69.
- Tsvetkov, D. V. (2024). Деятельность и научное наследие И. К. Россохина в контексте культур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30–60-е г

оды XVIII века)” [Illarion Rossokhin’s Activities and Scientific Heritage in the Context of Cultural Interac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1730s–1760s)]. *Nasledie vekov*, 3, 15-25.

The first translations of the *Four Books* into Russian — Focusing on Volkov's 18th-century translation of *The Analects* and Bichurin's 19th-century translation of *The Great Learning*

Aleksandra Bykova (alex.bykova.ru@gmail.com)

Department of Confucian Studies, Eastern Philosophy and Korean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initiate a discussion on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Confucian classics in Russian translation by examining the earliest Russian translations of the *Four Books*. The study focuses on Volkov's translation dating back to the 18th century known as the earliest translation of the *Four Books* into Russian, and the translation completed by Bichurin in the 19th century. Through careful analysis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that gave birth to Russian sinology and fostered its evolution, this paper aims to show the attitude change towards the translation of the Confucian classics. While in the 18th century early Russian scholars seemed to regard the translation of the Confucian classics merely as language training exercise, the multi-layered structure of the translation offered by Bichurin suggests that in the 19th century the Confucian classics became a subject of scientific interest and research. Despite their historical value, the early Russian translations of the *Four Books* still remain unpublished and thus largely unexplored in scholarly research. Due to difficulties in accessing the manuscripts, this paper draws on the findings of two previous studies, highlight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Volkov's translation of *The Analects* and Bichurin's translation of *The Great Learning*. The study brings a new subject to the Korean scholarship and represents a first step toward reconstructing the history of the translation of the Confucian classics into Russian.

Keywords: Confucianism in Russia; Confucian studies; translation of Confucian Classics; Four Books; Analects; Great Learning; Confucius

키워드: 유교연구, 유교 고전의 번역, 사서, 논어, 대학, 공자

비코바 알렉산드라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한국철학과 박사과정
alex.bykova.ru@gmail.com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1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15일